

오카리즈 단장님: “교황님의 증언은 우리에게 자비의 사도로서 계속 걸어가도록 요구합니다”.

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선종에 대한 오푸스데이 단장님의 말씀.

2025-4-22.

이 슬픈 순간에 우리는 온 교회와 함께 사랑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영혼을 위해 주님께 기도를 올립니다. 하느님께서서는 하느님의 백성과 전 세계를 위한 교황님의 아낌없는 헌신에 보답하실 것입니다.

교황님은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지셨으며, 교황직의 주요 방향 중 하나는 바로 오늘날 남녀에게 자비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. 교황님은 자신의 모범을 통해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환영하고 경험하도록 격려하셨습니다. 하느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데 지치지 않으십니다. 또한, 교황님은 우리에게 가르침과 증거의 핵심인 수없이 부드러운 모습을 지칠 줄 모르고 보이셨던 것처럼,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촉구하셨습니다.

성 호세마리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"교황님의 말씀을 믿음과 겸손으로 내면 깊이 그리고 실

제로 받아들이십시오. 그리고 그 말씀
씀을 전하십시오." (담금질 133). 프란
치스코 교황님의 모범이 무관심과 폭
력의 상처로 얼룩진 이 세상에서 우
리가 그 증언을 되새기고 자비의 사
도로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
를 바랍니다.

희망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께로
나아갑시다.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성
모님을 이렇게 부르기를 좋아하셨습
니다. "마리아의 모든 삶은 육신이 되
신 자비의 현존에 의해 변화되었습니
다." (미제리코르디아에 불투스,
Misericordiae Vultus). 언젠가 우리도
성모님을 희망의 어머니로 묵상할 수
있기를 기도합니다.

.....

jabiyi-sadoroseo-gyesog-geoleogadorog-
yoguhabnida/ (2025-8-6.)